

전국서 줄 잇는 참배객 행렬...“민주주의 소중함 배워갑니다”



유족들 헌화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유족들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김태규 기자



문재학 열사 추모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모티브가 된 문재학 열사 묘에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말라버린 눈물 이제는 눈물도 말라 버린 한 어머니가 자식 무덤의 잡초를 뽑고 있다.



“오월정신 응원해요”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외국인들이 오월 민주버스에 오월 정신을 응원하는 글을 적고 있다.



난타공연

추모제에서 놀이패 만월이 난타 공연을 하고 있다.



참배객 붐비는 5·18 민주묘지

17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참배객들로 크게 붐비고 있다.